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 (Isaiah 44:4)

2017 10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로마서 · 고린도전서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Isaiah 44:4)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10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1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10

2017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교인	2 전교인	3 전교인	4 전교인	5 전교인	6 전교인	7 전교인
8 전교인	9 전교인	10 13교구	11 5교구	12 15교구	13 6교구	14 전교인
15 전교인	16 전교인	17 16교구	18 8교구	19 17교구	20 9교구	21 전교인
22 전교인 제5차 학습·세례식	23 전교인	24 18교구	25 14교구	26 1교구	27 7교구	28 전교인
29 전교인 종교개혁주일	30 전교인	31 10교구				

교회 주요 일정

10월 22일(주일) 제5차 학습·세례식

10월 29일(주일) 종교개혁주일

10월, 개인 전도 계획

...

.....

.

.....

.....

.....

.....

.....

.....

.....

.....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아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 ③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 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④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업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⑥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⑦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목사님의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협력과 섬김이 있게 하소서.
- ⑧ 중직자(장로·안수집사·권사)들이 먼저 복음으로 깨어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⑨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⑩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 일

본문 로마서 8:18~30 찬송가 407장

>>> 본문 해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만 누리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상속받을 때까지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17절).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으로는 내 몸에 여전히 배어 있는 죄악된 습관들과 싸워야 하고 밖으로는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18절).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올 영광스러운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고난을 견디는 동안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며 끝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도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소서.

¹⁸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¹⁹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²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²¹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²²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²³ 그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²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²⁵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²⁶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²⁷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²⁸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²⁹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³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도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나열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한 본문의 표현은 승리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비록 죽음의 환난을 당하여 순교할지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또한 그 승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의 승리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완전한 승리는 '주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주께서 성도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이며 지금도 계속된 사랑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히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음까지 기꺼이 감당하셨고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곤경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35절) 순간순간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38-39절). 나의 구원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상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³¹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³²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³³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³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³⁵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³⁶ 기록된 바 우리가 중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³⁷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³⁸ 내가 확신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³⁹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이르는 구원의 경륜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혈통의 순서도, 선악 간의 행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속사에 쓰임받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조건이나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구원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롬 8:28)에게 허락된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은 은혜 입은 자로서 자녀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기에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히 감사드립니다.

» 기도 제목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¹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⁵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⁶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⁷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아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⁸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⁹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¹⁰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아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¹¹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¹²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¹³ 기록된 바 내가 아굽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¹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¹⁵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¹⁶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¹⁷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¹⁸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우리는 때로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으로 정하려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다른 이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일이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조건이 노력 여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당연한 듯 요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나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의 일하심을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긍휼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은 사람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또는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끝까지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¹⁶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²⁰이 사람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²¹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²²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²³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²⁴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

라 ²⁵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²⁶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²⁷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²⁸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²⁹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рода 함과 같으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높이뛰기 선수가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선하게 행하고 의를 따랐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앞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사 28:16). 이 돌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졌는데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심판의 반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의지하여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가운데 단지 이 돌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편입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난 의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는 자들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반석이신 주를 믿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 기도 제목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³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³¹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³² 어찌 그러하나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³³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사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¹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²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³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는 상태' 즉 '영적 무지 상태'로 진단합니다. 열심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릇된 지식에 기원하거나, 바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서의 열심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바른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유익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장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종교적 열심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른 지식이 없었던 까닭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의 바울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무지란 인간의 열심을 무익한 것으로 만듭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잠 19:2)는 말씀과 같이 지식이 동반되지 않는 열심은 인생의 소중한 자원들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롬 1:17)는 구약 성경 전체가 고대하던 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일체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무참히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 기도 제목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하게 하소서.

⁵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⁶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는 것이요 ⁷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⁸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라 ⁹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¹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¹¹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¹²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¹³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14절). 믿음은 어느날 우연히 혹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17~18절). 우리는 다 복음에 빛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15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고, 먼저 듣고,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듣고 믿은 복음의 진리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구원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에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나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¹⁶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
 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
 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¹⁷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¹⁸ 그러나 그들이 다 복
 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
 뎠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¹⁹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²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
 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
 였느니라 ²¹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
 였고 ²²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
 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²³ 이
 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기 하지 않으십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버리신 것이냐고 스스로 묻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은 대답은 아주 짧고 간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 확증합니다. 즉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순종을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그곳에도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남겨 두십니다.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엘리아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자 7천 명을 남겨 두셨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남겨 두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들의 행위와 열심에 집중했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은혜를 거절할 만큼 완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선택하신 백성의 실패를 파멸로 이끌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끝내 쓰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기에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¹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²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³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아이다 하니 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비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⁵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⁶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⁷ 그런

즉 어떠하나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⁸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⁹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덧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¹⁰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¹¹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¹²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총만함이지요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 이유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접붙임의 원리로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신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을 참감람나무의 가지 얼마를 잘라내어 그곳에 접붙여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감람나무의 뿌리'란 이스라엘의 조상을 가리키며 '진액'이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바로 돌감람나무요 결가지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엡 2:11~12). 그러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외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비유를 통해 자기 백성의 회복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돌감람나무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인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돌감람나무와 같은 자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하여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¹³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 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¹⁴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 이라 ¹⁵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 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¹⁶ 제사하 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 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 니라 ¹⁷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 람나무 뿌리의 잔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 은즉 ¹⁸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 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 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¹⁹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²⁰ 옳도다 그들은 믿 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 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 라 ²¹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 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²²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 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 도 찌히는 바 되리라 ²³ 그들도 믿지 아니하 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 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 라 ²⁴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찌힘을 받고 본 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 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 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이스라엘이 비록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복음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택하심과 관련해서는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자들이었으나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 백성의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 은혜를 주시는지, 왜 자기 백성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지만 다만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의 초대에 감사하며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침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며, 마침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나를 있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감사하며 내 평생에 사는 동안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²⁵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
 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²⁶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아굽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
 고 ²⁷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
 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
 니라 ²⁸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
 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²⁹ 하나님의 은사
 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³⁰ 너희
 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³¹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
 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³² 하
 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려 하심이로다 ³³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
 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³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가 되었느냐 ³⁵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깊으심
 을 받겠느냐 ³⁶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여다 아멘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성도가 드려야 할 제사는 산 제사인데, 바울은 이를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 성도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훈했는데, 이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불신앙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가 세상의 죄악된 사상과 습관을 버려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 구별된 것이어야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성도의 삶은 세상의 죄악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함으로써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좇아 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름으로써 사탄의 기뻐하는 뜻을 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받은 바 직분과 은사에 따라 적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의 각 지체로서 성도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지니는 동시에 각 지체들의 다양성을 지니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각자의 직분과 은사에 따라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소서.

¹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²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³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⁵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⁶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⁷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⁸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사도 바울은 은혜받은 성도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 대하여 저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축복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실천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랑에 근거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을 취하는 악인들과 대조되는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시키심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심으로 성도들의 화평케 하는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는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주리는 것과 목마른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원수의 생명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악인을 이기라고 하지 않고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적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임을 말한 것입니다. 원수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우리의 싸움의 적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 짓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의 사랑과 낮아지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⁹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
 에 속하라 ¹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¹¹ 부지런하여 게
 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¹²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¹³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¹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¹⁵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¹⁶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

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¹⁷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
 한 일을 도모하라 ¹⁸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¹⁹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
 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
 께서 말씀하시니라 ²⁰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
 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
 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²¹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권세를 집행하는 자들인 관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관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상에 세우신 제도 속에서 일익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관원들로 하여금 사회의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집행하는 관원들에 대하여 성도들은 순응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권세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아직은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관원들이 집행하는 법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 법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거나 관원들이 불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권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도록 권면하며 경고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관원들의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는 성도들이 악행을 행하여 관원들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회 속에서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성도들이기에 세상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화소서.

¹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²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라 ³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

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⁵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⁶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⁷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성도들에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고 명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계명의 근본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이웃에게 해를 끼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심에서도 나타납니다. 새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율법보다 차원이 높은 사랑의 법을 좇아 살아가는 자들이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 왔으므로 성도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권면하였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악한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두움은 짙어지나 새벽이 가까워 오듯이 세상이 더욱 악하여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함으로 행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좇아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길로 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을 좇아 살아갈 때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
 성이니라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
 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
 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
 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
 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
 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
 지 말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하여 성도가 형제를 판단하는 일에 대하여 경계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 먹기를 꺼려하였고 믿음이 굳건한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밝힘으로써 성도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교훈하였습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른 자세이며 이러한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성도가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은 판단자가 아니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교훈하였습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판단을 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행위를 직고하게 됨을 바울은 강조하였는데, 그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한 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내 주위의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¹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²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³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⁴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⁵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⁶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यो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⁷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⁸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⁹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¹⁰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¹¹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¹²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형제 앞에 넘어질 걸림돌을 두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므로 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로 인하여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법을 어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영혼을 식물에 대한 사상 때문에 실족시킨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스르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가 사랑에 있음을 교훈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함으로써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존재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적 열심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함과 사랑 가운데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성도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믿음으로 행치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교훈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가 다른 사람을 좇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먹게 될 때 범죄하게 되는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먹을 수 있어도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의 마음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¹³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¹⁴ 내가 주 예수 안
 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
 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
 에게는 속되니라 ¹⁵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
 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
 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¹⁶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
 지 않게 하라 ¹⁷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와 평강과 희락이라 ¹⁸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
 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도 칭찬을 받느니라 ¹⁹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
 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²⁰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
 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
 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²¹ 고기도 먹
 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
 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
 함이 아름다우니라 ²²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
 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
 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는 복이 있도다 ²³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
 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함이 마땅함을 밝히면서 성도가 각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 것을 명하였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여야 할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모범된 사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교훈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맥 상통합니다. 그리스도의 파랑의 계명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실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본받아 사는 데 있어서 인내와 성경의 안위가 필요하며 그로 인해 소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입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함을 밝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받아들여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같이 성도들도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용서와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받아들일 것을 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받아들여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포용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함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에 있음을 파력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지닌 자들이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이 땅 가운데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²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³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⁴ 무엇 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⁵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⁶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⁷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⁸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⁹ 이방인들도 그 공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¹⁰ 또 이르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¹¹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¹²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¹³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 시기를 원하노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들로 더욱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이 땅에서는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없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다져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사명이 특별히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베푸신 이적과 능력과 기사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써 많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에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증거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언제나 어려움이 많은 동시에 새롭게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서의 원칙은 그의 투철한 사명 의식을 증거하여 줍니다.

>>> 기도 제목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¹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¹⁵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¹⁶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¹⁷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¹⁸ 그리스도께

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¹⁹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²⁰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 하려 함이라 ²¹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일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을 보기를 열망했는데 이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여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걱정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하여 마게도냐 교회가 도움을 주었으므로 자신이 그 일을 인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면서 그 일을 마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이 신령한 것으로 유대인들과 나뉘 가졌으므로 육신의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섬김과 사랑은 지역을 초월하여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의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이 아름다움을 교훈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유대의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이 보호를 받고 성도를 물질로 섬기는 일이 덕스러운 가운데 이루어지며 기쁨으로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기를 위함이었습니니다. 이는 자신의 계획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길을 계획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²²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²³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²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귄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램이라 ²⁵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²⁶ 이는 마게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²⁷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²⁸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²⁹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³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³¹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³²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³³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감하면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뵈뵈를 천거하며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뵈뵈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도운 신실한 성도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 하였는데,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로마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는 성도 간에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보여 주신 사랑은 성도들이 서로 간에 행하여야 할 모범이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좇아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
 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
 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
 자가 되었음이라 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게 문안하라 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
 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
 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6 너
 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
 라 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
 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
 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
 스도 안에 있는 자라 8 또 주 안에서 내 사랑

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 그리스도 안에
 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
 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
 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척 헤로
 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
 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 주 안에서 수고
 한 드루베니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
 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
 하라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
 제들에게 문안하라 15 빌롤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
 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동역자들이 아닌 자들에게 경고함으로 로마교회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이 직면하는 위험들을 상기시켰습니다(17절). 이런 위험을 주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했습니다(18절).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겼습니다. 그럴 듯한 말과 아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펴보고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은 순종 때문에 기뻐했습니다(19절).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직 교회 안에 있었지만 사탄의 영향력은 일시적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항상 임박해 있음을 상기시키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멸하실 것을 기도했습니다(20절). 그리고는 고린도에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로마교회에게 전했습니다(21-24절).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대해 최종적으로 요약하며 찬양했습니다(25-27절).

평강의 하나님은 사탄을 짓밟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시기에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그만두거나 저버리지 않고 유혹과 시련에 저항하는 능력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이 복음은 구약에 예시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성취의 절정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계획이 실현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고 재섭니다.

»» 기도 제목

저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삼으사 복음으로 오늘도 견고하게 하소서.

“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21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22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3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4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6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7 (없음) 28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9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30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전형적인 서신은 저자가 자기 자신과 수신자를 밝히고 간략한 인사말을 전하는 서언으로 시작했습니다(1-2절). 발신자인 바울과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행 18:17)가 수신자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바울은 수신자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했습니다(2절).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서신의 두 번째 항목은 기도나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항목을 주로 영적인 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4-9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교회에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셨다고(5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하셨다고(6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7절)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이 모든 은사들을 남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이 보증한다고 고백했습니다(8-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성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많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끝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성도로 저를 세워주소서.

¹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²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³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⁴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⁵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⁶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⁷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⁸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⁹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형제들로 불렀습니다(10절). 그리고 그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열이 없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권면했습니다(10절). 고린도교회 안에 제각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습니다(12절). 고린도교회 안에 미성숙한 성도들은 자신들을 주님에게도 데리고 왔던 특별한 지도자들을 우상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13-17절). 초대교회에서의 세례는 죄로부터의 회개를 의미하는 외적인 의식이었고 기독교 공동체로의 입문을 상징했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돕고 분열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보내셨음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17절).

교회의 연합은 진리를 기반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인식할 때에 믿음의 핵심을 영원히 형성하는 근본적인 진리의 핵심과 하나가 됩니다. 인간 지도자를 높이 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교만과 경쟁보다는 겸손함으로 십자가 지향적이 됩니다.

>>> 기도 제목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경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추게 하사 하나 되게 하소서.

¹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¹¹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¹²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¹³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¹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¹⁵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¹⁶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¹⁷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말의 자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본질적으로 대조했습니다(18절). 이 세상이 십자가 중심적인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극적이고 이적적인 확증을 바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사색적인 철학과 지혜를 숭상했습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는 오욕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23절). 하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확증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인종적인 배경을 갖든지 그 십자가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발견했습니다(24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28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지혜와 모든 혜택들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의와 도덕적인 정결,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30절).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마음에는 자기중심주의라는 인간의 죄의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설득적인 논증으로 타락한 인간의 기대를 만족시키고자 한다면, 복음은 그 능력을 상실합니다. 진리는 인간의 최대한의 지성과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신뢰의 겸손한 엎드림 속에서 오는 은혜로 ‘받아질’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를 감동하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사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²³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²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²⁵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²⁶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²⁷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²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²⁹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³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³¹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³²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³³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³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³⁵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³⁶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통 수준의 설득하는 형태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제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때에 주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확신시키셨습니다(행 18:9-10). 바울의 말과 선포가 다른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설득적이라 할지라도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4절). 바울은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기초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중심적인 기독교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나 마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비밀로 감춰오던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 통치자인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권세자들이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님께서 매일 매일 깨닫게 하사 우리 안의 세상의 가치를 이기게 하소서.

¹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²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³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⁵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⁶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⁷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⁸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구원을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전에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구원을 주셨습니다(9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12-13절). 바울은 성령님이 신성을 가지신 인격적인 특징을 가진 분으로 소개했습니다(14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서 인간적인 평가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15-16절).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 기도 제목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⁹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¹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¹¹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¹²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¹³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시니라 ¹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¹⁵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¹⁶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성령에 지배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며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습니다(1절). 그들은 유아들처럼, 중생하지 못한 사람처럼 분파적으로 행동했습니다(4절). 고린도 성도들의 분열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역할과 그분의 종으로 일하는 지도자들의 역할을 간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울과 이볼로는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위치는 동등했습니다(5절).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으로,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표현하며 교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6-9절).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집을 짓는다고 바울은 비유했습니다(10-13절). 금이나 은이나 값나가는 돌들과 같이 쉽게 타지 않는 재료와 나무나 풀같이 쉽게 타는 재료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따라 삶을 살았던 방식을 말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공적들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을 말합니다. 진정한 공적은 믿음에서 나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서 선택하며 사는데 들인 정성과 힘입니다. 그날 주 앞에서 불 가운데 인간적인 공적은 다 불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주 앞에서 서는 그 날을 매 순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여 정성과 힘을 다해 살게 하소서.

¹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²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³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⁵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⁶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⁷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⁹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¹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¹¹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¹²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¹³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¹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¹⁵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16절). 이 성전은 공동체적인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17절). 고린도 성도들은 사회적 표준을 따라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여 서로 분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18절).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19절).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20절). 그러므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고린도 성도들은 있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가고자 궁리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서, 자신의 기준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생각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 기도 제목

주께서 우리의 생각이 헛됨을 드러내사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¹⁶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¹⁷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¹⁸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¹⁹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

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²⁰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²¹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²²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²³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과도하게 사역자들을 이상시 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역자들을 올바른 인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1-21절). 사역자들은 신실한 종들이며(1-5절), 성경에 의해 판단 받아야 하고(6-7절),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었습니다(8-13절). “종”(1절), “맡은 자”(2절)는 사역자들을 지칭하며 칭지기를 의미합니다. 칭지기의 핵심적인 의무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기초한 판단에 비하면 미성숙합니다. 주가 오실 때(5절) 온전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6절)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받을 만해서 영적인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오만과 오도된 성숙의 모습을 반영하여 배가 부른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풍자했습니다(8절).

교회 지도자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며, 모범자이며,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자로 서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들을 묵회적으로 돌보는 데 부여된 권위를 가진 자로 존중해야 합니다. 부르신 모습대로 사역할 때 교회 안에 온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모습대로 충성하다보면 주께서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심에 순종하는 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사 주께서 오실 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하소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²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³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⁴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⁵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 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⁶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

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⁷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나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⁸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고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⁹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고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사역자인 자신을 비교했습니다(10절). 사역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어리석고, 약하고 명예롭지 못했습니다(11-14절).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였고,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고린도 교회가 어리석고, 약하고 명예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15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본받아 살 것을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16절). 그리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17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교만해진 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18-19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선생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 일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20절).

»» 기도 제목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쓰레기와 같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섬기는 자로 서게 하소서.

¹³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¹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¹⁵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¹⁶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고도 ¹⁷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¹⁸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¹⁹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

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²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²¹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²²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²³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²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고린도교회 내 부도덕한 형제가 근친상간의 음란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에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1절)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생모와 성적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모와 성적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이 범죄를 저지른 한 형제를 추방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교회는 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형제를 추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 형제는 사회적 엘리트에 속한 사람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 아버지의 재산은 부인이 상속받고, 아들에게는 적은 몫만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재정적 동기부여로 계모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앞에 바울은 죄를 지은 이 형제가 회개하여 구원이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5절).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사신 교회의 순수성을 보전하기를 원했습니다(6~7절).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아무도 이 일을 쉬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전면에 음행한 자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모여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추악한 죄들이 사라지고 은폐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감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복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죄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 기도 제목

나 자신과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하여 순결함을 회복시키는 작은 밑일이 되게 하소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²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
 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³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
 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⁴주 예수의 이름
 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⁵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

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⁶너희가 자랑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⁷너희
 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
 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⁸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10월 1일 주일

Romans 8:18~30

18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19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for the sons of God to be revealed.

20 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rustration, not by its own choice, but by the will of the one who subjected it, in hope

21 that the creation itself will be liberated from its bondage to decay and brought into the glorious freedom of the children of God.

22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as in the pains of childbirth right up to the present time.

23 Not only so, but we ourselves, who have the firstfruits of the Spirit, groan inwardly as we wait eagerly for our adoption as sons,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24 For in this hope we were saved. But hope that is seen is no hope at all. Who hopes for what he already has?

25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we wait for it patiently.

26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27 And he who searches our hearts knows the mind of the Spirit, because the Spirit intercedes for the saints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28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29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30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10월 2일 월요일

Romans 8:31~39

31 What, then,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i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32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33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whom God has chosen? It is God who justifies.

34 Who is he that condemns? Christ Jesus, who died--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to life--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35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36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face death all day long; we a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37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38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nor any powers,

39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10월 3일 화요일

Romans 9:1~18

1 I speak the truth in Christ--I am not lying, my conscience confirms it in the Holy Spirit--

2 I have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3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cursed and cut off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brothers, those of my own race,

4 the people of Israel. Theirs is the adoption as sons; theirs the divine glory, the covenants, the receiving of the law, the temple worship and the promises.

5 Theirs are the patriarchs, and from them is traced the human ancestry of Christ, who is God over all, forever praised! Amen.

6 It is not as though God's word had failed. For not all who are descended from Israel are Israel.

7 Nor because they are his descendants are they all Abraham's children. On the contrary,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 8 In other words, it is not the natural children who are God's children, but it is the children of the promise who are regarded as Abraham's offspring.
- 9 For this was how the promise was stated: "At the appointed time I will return, and Sarah will have a son."
- 10 Not only that, but Rebekah's children had one and the same father, our father Isaac.
- 11 Yet, before the twins were born or had done anything good or bad--in order that God's purpose in election might stand:
- 12 not by works but by him who calls--she was told,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 13 Just as it is written: "Jacob I loved, but Esau I hated."
- 14 What then shall we say? Is God unjust? Not at all!
- 15 For he says to Moses, "I will have mercy on whom I have mercy, and I will have compassion on whom I have compassion."
- 16 It does not, therefore, depend on man's desire or effort, but on God's mercy.
- 17 For the Scripture says to Pharaoh: "I raised you up for this very purpose, that I might display my power in you and that my name might be proclaimed in all the earth."
- 18 Therefore God has mercy on whom he wants to have mercy, and he hardens whom he wants to harden.

10월 4일 수요일

Romans 9:19~29

- 19 One of you will say to me: "Then why does God still blame us? For who resists his will?"
- 20 But who are you, O man, to talk back to God? "Shall what is formed say to him who formed it, 'Why did you make me like this?'"
- 21 Does not the potter have the right to make out of the same lump of clay some pottery for noble purposes and some for common use?
- 22 What if God, choosing to show his wrath and make his power known, bore with great patience the objects of his wrath--prepared for destruction?
- 23 What if he did this to make the riches of his

glory known to the objects of his mercy, whom he prepared in advance for glory--

- 24 even us, whom he also called, not only from the Jews but also from the Gentiles?
- 25 As he says in Hosea: "I will call them 'my people' who are not my people; and I will call her 'my loved one' who is not my loved one,"
- 26 and, "It will happen that in the very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they will be called 'sons of the living God.'"
- 27 Isaiah cries out concerning Israel: "Though the number of the Israelites be like the sand by the sea, only the remnant will be saved.
- 28 For the Lord will carry out his sentence on earth with speed and finality."
- 29 It is just as Isaiah said previously: "Unless the Lord Almighty had left us descendants, we would have become like Sodom, we would have been like Gomorrah."

10월 5일 목요일

Romans 9:30~33

- 30 What then shall we say? That the Gentiles, who did not pursue righteousness, have obtained it,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 31 but Israel, who pursued a law of righteousness, has not attained it.
- 32 Why not? Because they pursued it not by faith but as if it were by works. They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 33 As it is written: "See, I lay in Zion a stone that causes men to stumble and a rock that makes them fall, and the 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Romans 10:1~4

- 1 Brothers, my heart's desire and prayer to God for the Israelites is that they may be saved.
- 2 For I can testify about them that they are zealous for God, but their zeal is not based on knowledge.
- 3 Since they did not know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God and sought to establish their own,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 4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10월 6일 금요일

Romans 10:5~13

- 5 Moses describes in this way the righteousness that is by the law: "The man who does these things will live by them."
6 But the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says: "Do not say in your heart, 'Who will ascend into heaven?'" (that is, to bring Christ down)
7 "or 'Who will descend into the deep?'" (that is, to bring Christ up from the dead).
8 But what does it say? "The word is near you;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is, the word of faith we are proclaiming:
9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10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11 As the Scripture says, "Any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12 For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Gentile--the same Lord is Lord of all and richly blesses all who call on him,
13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10월 7일 토요일

Romans 10:14~21

- 14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15 And how can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16 But not all the Israelites accepted the good news. For Isaiah says, "Lord,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17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18 But I ask: Did they not hear? Of course they did: "Their voice has gone out into all the earth, their words to the ends of the world."
19 Again I ask: Did Israel not understand? First, Moses says, "I will make you envious by those who are not a nation; I will make you

angry by a nation that has no understanding."

- 20 And Isaiah boldly says, "I was found by those who did not seek me; I revealed myself to those who did not ask for me."
21 But concerning Israel he says, "All day long I have held out my hands to a disobedient and obstinate people."

10월 8일 주일

Romans 11:1~12

- 1 I ask then: Did God reject his people? By no means! I am an Israelite myself, a descendant of Abraham, from the tribe of Benjamin.
2 God did not reject his people, whom he foreknew. Don't you know what the Scripture says in the passage about Elijah--how he appealed to God against Israel:
3 "Lord, they have killed your prophets and torn down your altars; I am the only one left, and they are trying to kill me?"
4 And what was God's answer to him? "I have reserved for myself seven thousand who have not bowed the knee to Baal."
5 So too,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6 And if by grace, then it is no longer by works; if it were, grace would no longer be grace.
7 What then? What Israel sought so earnestly it did not obtain, but the elect did. The others were hardened,
8 as it is written: "God gave them a spirit of stupor, eyes so that they could not see and ears so that they could not hear, to this very day."
9 And David says: "May their table become a snare and a trap, a stumbling block and a retribution for them."
10 May their eyes be darkened so they cannot see, and their backs be bent forever."
11 Again I ask: Did they stumble so as to fall beyond recovery? Not at all! Rather, because of their transgression, salvation has come to the Gentiles to make Israel envious.
12 But if their transgression means riches for the world, and their loss means riches for the Gentiles, how much greater riches will their fullness bring!

10월 9일 월요일

Romans 11:13~24

- 13 I am talking to you Gentiles. Inasmuch as I am the apostle to the Gentiles, I make much of my ministry
14 in the hope that I may somehow arouse my own people to envy and save some of them.
15 For if their rejection is the reconciliation of the world, what will their acceptance be but life from the dead?
16 If the part of the dough offered as firstfruits is holy, then the whole batch is holy; if the root is holy, so are the branches.
17 If some of the branches have been broken off, and you, though a wild olive shoot, have been grafted in among the others and now share in the nourishing sap from the olive root,
18 do not boast over those branches. If you do, consider this: You do not support the root, but the root supports you.
19 You will say then, "Branches were broken off so that I could be grafted in."
20 Granted. But they were broken off because of unbelief, and you stand by faith. Do not be arrogant, but be afraid.
21 For if God did not spare the natural branches, he will not spare you either.
22 Consider therefore the kindness and sternness of God: sternness to those who fell, but kindness to you, provided that you continue in his kindness. Otherwise, you also will be cut off.

- 23 And if they do not persist in unbelief, they will be grafted in, for God is able to graft them in again.
24 After all, if you were cut out of an olive tree that is wild by nature, and contrary to nature were grafted into a cultivated olive tree, how much more readily will these, the natural branches, be grafted into their own olive tree!

10월 10일 화요일

Romans 11:25~36

- 25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is mystery, brothers, so that you may not be conceited: Israel has experienced a

hardening in part until the full number of the Gentiles has come in.

- 26 And so all Israel will be saved, as it is written: "The deliverer will come from Zion; he will turn godlessness away from Jacob."
27 And this is my covenant with them when I take away their sins."
28 As far as the gospel is concerned, they are enemies on your account; but as far as election is concerned, they are loved on account of the patriarchs,
29 for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30 Just as you who were at one time disobedient to God have now received mercy as a result of their disobedience,
31 so they too have now become disobedient in order that they too may now receive mercy as a result of God's mercy to you.
32 For God has bound all men over to disobedience so that he may have mercy on them all.
33 Oh, the depth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s beyond tracing out!
34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Or who has been his counselor?"
35 "Who has ever given to God, that God should repay him?"
36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10월 11일 수요일

Romans 12:1~8

- 1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2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3 For by the grace given me I say to every one of you: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but rather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 of faith God has given you.

- 4 Just as each of us has one body with many members, and these members do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
5 so in Christ we who are many form one body, and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6 We have different gifts,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us. If a man's gift is prophesying, let him use it in proportion to his faith.
7 If it is serving, let him serve; if it is teaching, let him teach;
8 if it is encouraging, let him encourage; if it is contributing to the needs of others, let him give generously; if it is leadership, let him govern diligently; if it is showing mercy, let him do it cheerfully.

10월 12일 목요일

Romans 12:9~21

- 9 Love must be sincere. Hate what is evil; cling to what is good.
10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11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serving the Lord.
12 Be joyful in hope, patient in affliction, faithful in prayer.
13 Share with God's people who are in need. Practice hospitality.
14 Bless those who persecute you; bless and do not curse.
15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16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Do not be proud, but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Do not be conceited.
17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body.
18 If it is possible, as far as it depends on you, live at peace with everyone.
19 Do not take revenge, my friends, but leave room for God's wrath, for it is written: "It is mine to avenge; I will repay," says the Lord.
20 On the contrary: "If your enemy is hungry, feed him; if he is thirsty, give him something to drink. In doing this,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 21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10월 13일 금요일

Romans 13:1~7

- 1 Everyone must submit himself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that which God has established. The authorities that exist have been established by God.
2 Consequently, he who rebels against the authority is rebelling against what God has instituted, and those who do so will bring judgment on themselves.
3 For rulers hold no terror for those who do right, but for those who do wrong. Do you want to be free from fear of the one in authority? Then do what is right and he will commend you.
4 For he is God's servant to do you good. But if you do wrong, be afraid, for he does not bear the sword for nothing. He is God's servant, an agent of wrath to bring punishment on the wrongdoer.
5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bmit to the authorities, not only because of possible punishment but also because of conscience.
6 This is also why you pay taxes, for the authorities are God's servants, who give their full time to governing.
7 Give everyone what you owe him: If you owe taxes, pay taxes; if revenue, then revenue; if respect, then respect; if honor, then honor.

10월 14일 토요일

Romans 13:8~14

- 8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for he who loves his fellowman has fulfilled the law.
9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covet," and whatever other commandment there may be, are summed up in this one rul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10 Love does no harm to its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 11 And do this,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The hour has come for you to wake up from your slumber, because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d.
- 12 The night is nearly over; the day is almost here. So let us put aside the deeds of darkness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 13 Let us behave decently, as in the daytime, not in orgies and drunkenness, not in sexual immorality and debauchery, not in dissension and jealousy.
- 14 Rather,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and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10월 15일 주일

Romans 14:1~12

- 1 Accept him whose faith is weak, without passing judgment on disputable matters.
- 2 One man's faith allows him to eat everything, but another man, whose faith is weak, eats only vegetables.
- 3 The man who eats everything must not look down on him who does not, and the man who does not eat everything must not condemn the man who does, for God has accepted him.
- 4 Who are you to judge someone else's servant? To his own master he stands or falls. And he will stand, for the Lord is able to make him stand.
- 5 One man considers one day more sacred than another; another man considers every day alike. Each one should be fully convinced in his own mind.
- 6 He who regards one day as special, does so to the Lord. He who eats meat, eats to the Lord, for he gives thanks to God; and he who abstains, does so to the Lord and gives thanks to God.
- 7 For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lone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alone.
- 8 If we live,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 9 For this very reason, Christ died and returned to life so that he might be the Lord of both the dead and the living.
- 10 You, then, why do you judge your brother? Or why do you look down on your brother?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God's judgment seat.
- 11 It is written: " 'As surely as I live,' says the Lord, 'every knee will bow before me; every tongue will confess to God.' "
- 12 So then,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to God.

10월 16일 월요일

Romans 14:13~23

- 13 Therefore let us stop passing judgment on one another. Instead, make up your mind not to put any stumbling block or obstacle in your brother's way.
- 14 As one who is in the Lord Jesus, I am fully convinced that no food is unclean in itself. But if anyone regards something as unclean, then for him it is unclean.
- 15 If your brother is distressed because of what you eat, you are no longer acting in love. Do not by your eating destroy your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 16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good to be spoken of as evil.
- 17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 18 because anyone who serves Christ in this way is pleasing to God and approved by men.
- 19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do what leads to peace and to mutual edification.
- 20 Do not destroy the work of God for the sake of food. All food is clean, but it is wrong for a man to eat anything that causes someone else to stumble.
- 21 It is better not to eat meat or drink wine or to do anything else that will cause your brother to fall.
- 22 So whatever you believe about these things keep between yourself and God.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condemn himself by what he approves.
- 23 But the man who has doubts is condemned if he eats, because his eating is not from faith; and everything that does not come from faith is sin.

10월 17일 화요일

Romans 15:1~13

- 1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 2 Each of us should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to build him up.
- 3 For even Christ did not please himself but, as it is written: "The insults of those who insult you have fallen on me."
- 4 For everything that was written in the past was written to teach us, so that through endurance and 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s we might have hope.
- 5 May the God who gives endurance and encouragement give you a spirit of unity among yourselves as you follow Christ Jesus,
- 6 so that with one heart and mouth you may glorify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 7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in order to bring praise to God.
- 8 For I tell you that Christ has become a servant of the Jewson behalf of God's truth, to confirm the promises made to the patriarchs
- 9 so that the Gentiles may glorify God for his mercy, as it is written: "Therefore I will praise you among the Gentiles; I will sing hymns to your name."
- 10 Again, it says, "Rejoice, O Gentiles, with his people."
- 11 And again, "Praise the Lord, all you Gentiles, and sing praises to him, all you peoples."
- 12 And again, Isaiah says, "The Root of Jesse will spring up, one who will arise to rule over the nations; the Gentiles will hope in him."
- 13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10월 18일 수요일

Romans 15:14~21

- 14 I myself am convinced, my brothers, that you yourselves are full of goodness,

complete in knowledge and competent to instruct one another.

- 15 I have written you quite boldly on some points, as if to remind you of them again, because of the grace God gave me
- 16 to be a minister of Christ Jesus to the Gentiles with the priestly duty of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so that the Gentiles might become an offering acceptable to God,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 17 Therefore I glory in Christ Jesus in my service to God.
- 18 I will not venture to speak of anything except what Christ has accomplished through me in leading the Gentiles to obey God by what I have said and done--
- 19 by the power of signs and miracles,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So from Jerusalem all the way around to Illyricum, I have fully proclaimed the gospel of Christ.
- 20 It has always been my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where Christ was not known, so that I would not be building on someone else's foundation.
- 21 Rather, as it is written: "Those who were not told about him will see, and those who have not heard will understand."

10월 19일 목요일

Romans 15:22~33

- 22 This is why I have often been hindered from coming to you.
- 23 But now that there is no more place for me to work in these regions, and since I have been longing for many years to see you,
- 24 I plan to do so when I go to Spain. I hope to visit you while passing through and to have you assist me on my journey there, after I have enjoyed your company for a while.
- 25 Now, however, I am on my way to Jerusalem in the service of the saints there.
- 26 For Macedonia and Achaia were pleased to make a contribution for the poor among the saints in Jerusalem.
- 27 They were pleased to do it, and indeed they owe it to them. For if the Gentiles have shared in the Jews' spiritual blessings, they owe it to the Jews to share with them their

material blessings.

28 So after I have completed this task and have made sure that they have received this fruit, I will go to Spain and visit you on the way.

29 I know that when I come to you, I will come in the full measure of the blessing of Christ.

30 I urge you, brothers, by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love of the Spirit, to join me in my struggle by praying to God for me.

31 Pray that I may be rescued from the unbelievers in Judea and that my service in Jerusalem may be acceptable to the saints there,

32 so that by God's will I may come to you with joy and together with you be refreshed.

33 The God of peace be with you all. Amen.

10월 20일 금요일

Romans 16:1~16

1 I commend to you our sister Phoebe, a servant of the church in Cenchrea.

2 I ask you to receive her in the Lord in a way worthy of the saints and to give her any help she may need from you, for she has been a great help to many people, including me.

3 Greet Priscilla and Aquila, my fellow workers in Christ Jesus.

4 They risked their lives for me. Not only I but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are grateful to them.

5 Greet also the church that meets at their house. Greet my dear friend Epenetus, who was the first convert to Christ in the province of Asia.

6 Greet Mary, who worked very hard for you.

7 Greet Andronicus and Junias, my relatives who have been in prison with me. They are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 and they were in Christ before I was.

8 Greet Ampliatus, whom I love in the Lord.

9 Greet Urbanus, our fellow worker in Christ, and my dear friend Stachys.

10 Greet Apelles, tested and approved in Christ. Greet those who belong to the household of Aristobulus.

11 Greet Herodion, my relative. Greet those in

the household of Narcissus who are in the Lord.

12 Greet Tryphena and Tryphosa, those women who work hard in the Lord. Greet my dear friend Persis, another woman who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ord.

13 Greet Rufus, chosen in the Lord, and his mother, who has been a mother to me, too.

14 Greet Asyncritus, Phlegon, Hermes, Patrobas, Hermas and the brothers with them.

15 Greet Philologus, Julia, Nereus and his sister, and Olympas and all the saints with them.

16 Greet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All the churches of Christ send greetings.

10월 21일 토요일

Romans 16:17~27

17 I urge you, brothers, to watch out for those who cause divisions and put obstacles in your way that are contrary to the teaching you have learned. Keep away from them.

18 For such people are not serving our Lord Christ, but their own appetites. By smooth talk and flattery they deceive the minds of naive people.

19 Everyone has heard about your obedience, so I am full of joy over you; but I want you to be wise about what is good, and innocent about what is evil.

20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The grace of our Lord Jesus be with you.

21 Timothy, my fellow worker, sends his greetings to you, as do Lucius, Jason and Sosipater, my relatives.

22 I, Tertius, who wrote down this letter, greet you in the Lord.

23 Gaius, whose hospitality I and the whole church here enjoy, sends you his greetings. Erastus, who is the city's director of public works, and our brother Quartus send you their greetings.

24

25 Now to him who is able to establish you by my gospel and the proclamation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revelation of the mystery hidden for long ages past,

26 but now revealed and made known through

the prophetic writings by the command of the eternal God, so that all nations might believe and obey him--
 27 to the only wise God be glory forever through Jesus Christ! Amen.

10월 22일 주일

1 Corinthians 1:1~9

- 1 Paul, called to be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and our brother Sosthenes,
- 2 To the church of God in Corinth, to those sanctified in Christ Jesus and called to be holy, together with all those everywhere who call o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their Lord and ours:
- 3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 4 I always thank God for you because of his grace given you in Christ Jesus.
- 5 For in him you have been enriched in every way--in all your speaking and in all your knowledge--
- 6 because our testimony about Christ was confirmed in you.
- 7 Therefore you do not lack any spiritual gift as you eagerly wait for our Lord Jesus Christ to be revealed.
- 8 He will keep you strong to the end, so that you will be blameless on the day of our Lord Jesus Christ.
- 9 God, who has called you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is faithful.

10월 23일 월요일

1 Corinthians 1:10~17

- 10 I appeal to you, brother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all of you agree with one another so that there may be no divisions among you and that you may be perfectly united in mind and thought.
- 11 My brothers, some from Chloe's household have informed me that there are quarrels among you.
- 12 What I mean is this: One of you says, "I follow Paul"; another, "I follow Apollos"; another, "I follow Cephas"; still another, "I follow Christ."

- 13 Is Christ divided? Was Paul crucified for you? Were you baptized into the name of Paul?
- 14 I am thankful that I did not baptize any of you except Crispus and Gaius,
- 15 so no one can say that you were baptized into my name.
- 16 (Yes, I also baptized the household of Stephanas; beyond that, I don't remember if I baptized anyone else.)
- 17 For Christ did not send me to baptize, but to preach the gospel--not with words of human wisdom, lest the cross of Christ be emptied of its power.

10월 24일 화요일

1 Corinthians 1:18~31

- 18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 19 For it is written: "I will destroy the wisdom of the wise; the intelligence of the intelligent I will frustrate."
- 20 Where is the wise man? Where is the scholar? Where is the philosopher of this age? Has not God made foolish the wisdom of the world?
- 21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through its wisdom did not know him, God was pleased through the foolishness of what was preached to save those who believe.
- 22 Jews demand miraculous signs and Greeks look for wisdom,
- 23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olishness to Gentiles,
- 24 but to those whom God has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 25 For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man's wisdom, and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man's strength.
- 26 Brothers, think of what you were when you were called. Not many of you were wise by human standards; not many were influential; not many were of noble birth.
- 27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 28 He chose the lowly things of this world and

the despised things--and the things that are not--to nullify the things that are,
 29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30 It is because of him that you are in Christ Jesus, who has become for us wisdom from God--that is, our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31 Therefore, as it is written: "Let him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10월 25일 수요일

1 Corinthians 2:1~8

1 When I came to you, brothers, I did not come with eloquence or superior wisdom as I proclaimed to you the testimony about God.
 2 For I resolved to know nothing while I was with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3 I came to you in weakness and fear, and with much trembling.
 4 My message and my preaching were not with wise and persuasive words, but with a demonstration of the Spirit's power,
 5 so that your faith might not rest on men's wisdom, but on God's power.
 6 We do, however, speak a message of wisdom among the mature, but not the wisdom of this age or of the rulers of this age, who are coming to nothing.
 7 No, we speak of God's secret wisdom, a wisdom that has been hidden and that God destined for our glory before time began.
 8 None of the rulers of this age understood it, for if they had,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10월 26일 목요일

1 Corinthians 2:9~16

9 However, as it is written: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no mind has conceived w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10 but God has revealed it to us by his Spirit.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s of God.
 11 For who among men knows the thoughts of a man except the man's spirit within him? In the same way no one knows the

thoughts of God except the Spirit of God.

12 W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that we may understand what God has freely given us.
 13 This is what we speak, not in words taught us by human wisdom but in words taught by the Spirit, expressing spiritual truths in spiritual words.
 14 The man without the Spirit does not accept the things that come from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and he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15 The spiritual man makes judgments about all things, but he himself is not subject to any man's judgment.
 16 "For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that he may instruct him?" But we have the mind of Christ.

10월 27일 금요일

1 Corinthians 3:1~15

1 Brothers, I could not address you as spiritual but as worldly--mere infants in Christ.
 2 I gave you milk, not solid food, for you were not yet ready for it. Indeed, you are still not ready.
 3 You are still worldly. For since there is jealousy and quarreling among you, are you not worldly? Are you not acting like mere men?
 4 For when one says, "I follow Paul," and another, "I follow Apollos," are you not mere men?
 5 What, after all, is Apollos? And what is Paul? Only servants, through whom you came to believe--as the Lord has assigned to each his task.
 6 I planted the seed, Apollos watered it, but God made it grow.
 7 So neither he who plants nor he who waters is anything, but only God, who makes things grow.
 8 The man who plants and the man who waters have one purpose, and each will be rewarded according to his own labor.
 9 For we are God's fellow workers; you are God's field, God's building.
 10 By the grace God has given me, I laid a

foundation as an expert builder, and someone else is building on it. But each one should be careful how he builds.

- 11 For no one can lay any foundation other than the one already laid, which is Jesus Christ.
- 12 If any man builds on this foundation using gold, silver, costly stones, wood, hay or straw,
- 13 his work will be shown for what it is, because the Day will bring it to light. It will be revealed with fire, and the fire will test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 14 If what he has built survives, he will receive his reward.
- 15 If it is burned up, he will suffer loss; he himself will be saved, but only as one escaping through the flames.

10월 28일 토요일

1 Corinthians 3:16~23

- 16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 17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him; for God's temple is sacred, and you are that temple.
- 18 Do not deceive yourselves. If any one of you thinks he is wise by the standards of this age, he should become a "fool" so that he may become wise.
- 19 For the wisdom of this world is foolishness in God's sight. As it is written: "He catches the wise in their craftiness";
- 20 and again, "The Lord knows that the thoughts of the wise are futile."
- 21 So then, no more boasting about men! All things are yours,
- 22 whether Paul or Apollos or Cephas or the world or life or death or the present or the future--all are yours,
- 23 and you are of Christ, and Christ is of God.

10월 29일 주일

1 Corinthians 4:1~9

- 1 So then, men ought to regard us as servants of Christ and as those entrusted with the secret things of God.
- 2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 3 I care very little if I am judged by you or by any human court; indeed, I do not even judge myself.
- 4 My conscience is clear, but that does not make me innocent. It is the Lord who judges me.
- 5 Therefore judge nothing before the appointed time; wait till the Lord comes. He will bring to light what is hidden in darkness and will expose the motives of men's hearts. At that time each will receive his praise from God.
- 6 Now, brothers, I have applied these things to myself and Apollos for your benefit, so that you may learn from us the meaning of the saying, "Do not go beyond what is written." Then you will not take pride in one man over against another.
- 7 For who makes you different from anyone else? What do you have that you did not receive? And if you did receive it, why do you boast as though you did not?
- 8 Already you have all you want! Already you have become rich! You have become kings--and that without us! How I wish that you really had become kings so that we might be kings with you!
- 9 For it seems to me that God has put us apostles on display at the end of the procession, like men condemned to die in the arena. We have been made a spectacle to the whole universe, to angels as well as to men.

10월 30일 월요일

1 Corinthians 4:10~12

- 10 We are fools for Christ, but you are so wise in Christ! We are weak, but you are strong! You are honored, we are dishonored!
- 11 To this very hour we go hungry and thirsty, we are in rags, we are brutally treated, we are homeless.
- 12 We work hard with our own hands. When we are cursed, we bless; when we are persecuted, we endure it;
- 13 when we are slandered, we answer kindly. Up to this moment we have become the scum of the earth, the refuse of the world.

14 I am not writing this to shame you, but to warn you, as my dear children.

15 Even though you have ten thousand guardians in Christ, you do not have many fathers, for in Christ Jesus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16 Therefore I urge you to imitate me.

17 For this reason I am sending to you Timothy, my son whom I love, who is faithful in the Lord. He will remind you of my way of life in Christ Jesus, which agrees with what I teach everywhere in every church.

18 Some of you have become arrogant, as if I were not coming to you.

19 But I will come to you very soon, if the Lord is willing, and then I will find out not only how these arrogant people are talking, but what power they have.

20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

21 What do you prefer? Shall I come to you with a whip, or in love and with a gentle spirit?

For Christ, our Passover lamb, has been sacrificed.

8 Therefore let us keep the Festival, not with the old yeast, the yeast of malice and wickedness, but with bread without yeast, the bread of sincerity and truth.

10월 31일 화요일

1 Corinthians 5:1~8

1 It is actually reported that there is sexual immorality among you, and of a kind that does not occur even among pagans: A man has his father's wife.

2 And you are proud! Shouldn't you rather have been filled with grief and have put out of your fellowship the man who did this?

3 Even though I am not physically present, I am with you in spirit. And I have already passed judgment on the one who did this, just as if I were present.

4 When you are assembled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and I am with you in spirit, and the power of our Lord Jesus is present, hand this man over to Satan, so that the sinful nature may be destroyed and his spirit saved on the day of the Lord.

6 Your boasting is not good. Don't you know that a little yeast works through the whole batch of dough?

7 Get rid of the old yeast that you may be a new batch without yeast--as you really are.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44:4

충현리 만나 2017년 10월

Copyright© 2017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한규삼 · 편집인 | 엄복섭 · 집필진 | 이기성 이경민 유현정 김완기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